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4월

(막바지 단계의 미일 TPP 교섭)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개선기조 유지	2
2. 33개월만에 무역수지 흑자	6
3. 엔저·고주가·저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4개월만에 증가로 반전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막바지 단계 미일 TPP 교섭	12
2. 구매력평가와 엔화환율의 장기적 전망	14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확대	16
2.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큰 폭으로 감소	19
V. 참고 자료	20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
2. 주요 경제 일정	23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경 기 동 향 지 수 (2010=100)		-	-	-	-	-	-	-	113.3	110.7	-
GDP증가율(연율,%)		1.6	△0.0	5.1	△6.4	△2.6	1.5p	-	-		
국내 투자 (명목,조엔)	민간설비투자	66.0	69.5	21.4	16.3	17.7	16.2	-	-		
	공공투자	23.0	24.5	6.6	4.2	5.2	7.3	-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2.6	2.0	2.1	4.9	-	1.2	1.4	-
소비자물가	전기비	0.4	2.6	0.2	2.3	0.3	△0.1	-	△0.6	△0.1	-
상승율(%)	전년동기비	0.4	2.6	1.3	3.3	3.2	2.7	-	2.2	2.0	-
실업율(%)		4.0	3.6	3.6	3.6	3.6	3.5	-	3.6	3.5	-
수출(조엔)		69.8	73.1	17.5	17.6	18.3	19.8	18.9	6.1	5.9	6.9
수입(조엔)		81.3	85.9	22.4	20.2	21.2	22.1	20.4	7.3	6.4	6.7
무역수지(조엔)		△11.5	△12.8	△5.0	△2.6	△2.9	△2.3	△1.4	△1.2	△0.4	0.2
경상수지(조엔)		3.3	2.6	△0.9	0.3	1.7	1.4	-	0.06	1.4	-
환율	달러	97.7	105.8	102.8	102.1	104.0	114.3	119.1	118.2	118.6	120.4
	원화(100엔)	1,123	996	1,039	1,008.2	987.3	950	923.3	920	926	924
금리(10년물,%)		0.72	0.55	0.63	0.60	0.53	0.44	0.34	0.26	0.37	0.38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4,958	14,655	15,562	16,660	18,226	17,274	18,053	19,198

주: (p)는 2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개선기조 유지

- ‘15.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0.7로 전월대비 2.6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의 하락폭 축소

- ‘15.2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무역수지) 무역수지 0.2조엔 흑자로 33개월만에 적자 탈출

- ‘15.3월 수출은 6.9조엔 수입은 6.7조엔

□ (환율) 엔저 가속

- ‘15.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0.4 엔으로 전월대비 1.5% 엔저
- * ‘15.3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24원으로 전월대비 0.2%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개선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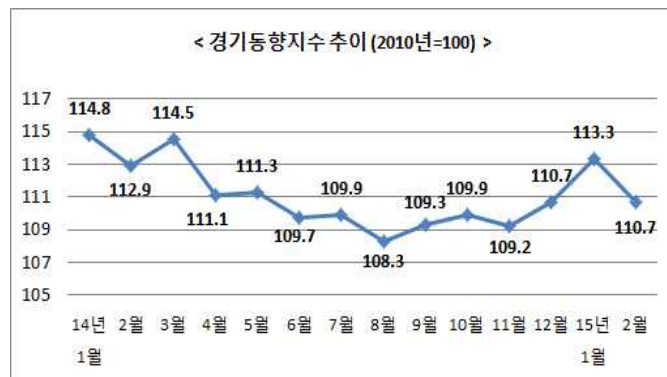
□ (경기기조 판단)

- 경기동향지수의 하락에도 경기기조판단은 개선을 유지
 - ‘15.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경기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3개월만에 110.7로 하락
 - 11개 경기지표중 투자재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등 8개 지표가 감소한 반면, 소매판매액은 소폭 증가
 - 일본 내각부는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개선되고 있다는 전월의 기조판단을 유지

□ (전 망)

- 2월의 경기동향지수 하락에도 경기회복세는 이어질 전망

- 고용 및 임금소득의 개선과 함께 유가하락, 경제대책의 효과 등이 경기지탱 요인으로 작용
- 수출도 완만한 세계경제의 회복과 엔저효과의 본격화로 증가 기조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 : 내각부

- 다만 수개월 앞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 측면에서 신규 구인수의 감소, 기업재고율의 상승 등이 향후 경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GDP>

□ '14.4분기 1.5% 성장, 2014년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성장

- '14.4분기 실질 GDP성장률(1차 속보치를 수정한 2차 속보치)은 전기비 0.4% 증가, 연율 환산으로는 1.5% 증가
 - 개인소비는 전기비 0.5% 증가로 2분기 연속 증가
 - 수출도 전기비 2.7% 증가함으로써 '14.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
 - 반면, 민간설비투자는 전기비 0.1% 감소
- 한편, 2014년 실질 GDP는 -0.0%의 마이너스 성장
 -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소비가 침체했으나 공공투자가 확대되어 명목GDP는 1.6% 증가
- '14.1분기에 이어 '15.1분기에는 더 높은 GDP성장률을 기록하고 2015년 연간으로도 2014년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
 - 일본의 11개 민간경제예측기관들이 전망한 '15.1분기 GDP 성장률 평균치는 전기비 연율 2.7%, 2015년 연간으로는 1.8%
 - 엔저로 수출이 증가하는데다 유가하락에 의한 물가상승폭 둔화로 소비심리가 개선 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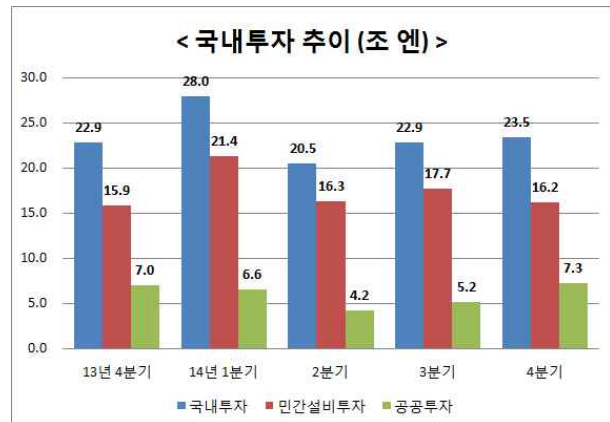
구 분	2013	2014	2013		2014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1.6	△0.0	0.4	△0.3	1.3	△1.6	△0.7	0.4
전기비연율			1.4	△1.2	5.1	△6.4	△2.6	1.5p
전년동기비			2.2	2.3	2.4	△0.3	△1.4	△0.8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 ‘14.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감소, 공공투자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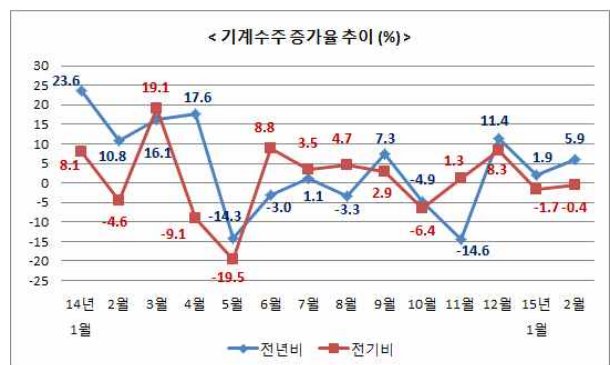
- 민간설비투자는 실질기준으로 전기비 0.1% 감소(명목기준: 4.9% 감소)
- 공공투자는 실질기준으로 0.8% 증가(명목기준: 28.7%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 민간설비투자와 공공투자를 합한 국내투자는 실질기준으로 전기비 0.1% 증가(명목기준으로는 3.5% 증가)



자료 : 내각부

□ (민간설비투자)

- ‘14.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16.2조 엔, 국내투자의 69%를 차지
- 엔저에 의한 수출물량 증대효과의 본격화, 유가 하락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생산 및 기업수익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 ‘15.2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1월에 이어 0.4% 감소
- 일본 내각부는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이라는 기조판단을 유지하면서 ‘15.1분기 전체로는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공공투자)

- ‘14.4분기 공공투자는 7.3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31%를 차지
- ‘14.12월에 발표된 3.5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 중 0.9조엔 정도가 공공투자로 지출될 예정이며, 효과는 2015년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15년 2월 전체 기계수주 중 관공수요는 21.9%의 큰 폭으로 감소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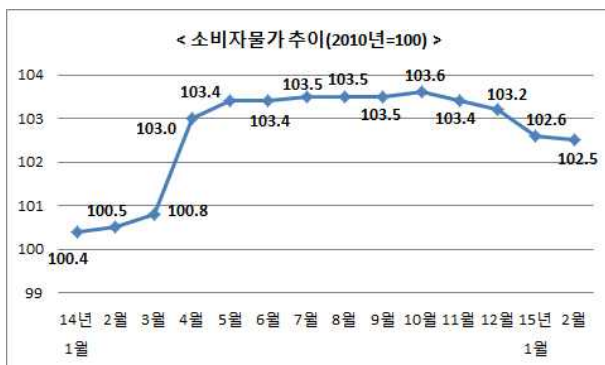
□ '14.2월 소비세인상분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제로

- '14.2월 소비자물가상승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2.5로 전월 대비 0.1% 하락, 전월보다는 하락폭이 약간 축소했으나 여전히 유가하락의 영향이 지속
-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 상승에 그침에 따라,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를 2.0%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코어코어 CPI)은 제로
- 당분간은 유가하락과 엔저의 영향으로 제로 부근에서 추이할 전망
 - 그러나 유가하락은 소비수요를 증가시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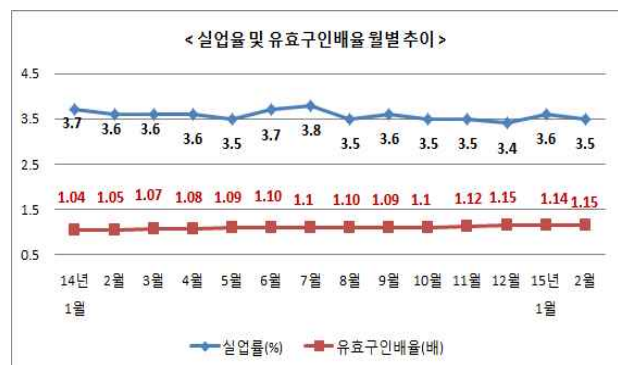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의 개선상황 유지

- '15.2월 완전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0.1%p 저하, 고용의 개선상황이 유지
 - 구직자들의 취업, 고용의 미스매치 등으로 인한 일시적 취업중단 등에 따른 실업자 감소가 주된 요인
 - 특히 비정규직 취업자 수가 201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도·소매, 건설업 등의 취업자 수가 감소
- '15.2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01p 높은 1.15배로, 기업의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손 부족 현상이 지속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33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

□ **(중 합)** 무역수지는 3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

- ‘15.3월 무역수지는 0.2조 엔 흑자로 33개월 만에 적자에서 탈출
 - 흑자 전환은 수입의 증가에도 수출이 전월의 5.9조엔에서 6.9조엔으로 크게 증가된 데 따른 것임
 -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6,318억 엔에서 6,031억 엔으로 줄었으나, 對중국 무역적자가 전월의 7,693억 엔에서 1,741억 엔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 무역흑자 전환에 기여

< 2015년 3월 일본의 수출입 (조 엔, %) >

	2015.2월			2015.3월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5.9	2.4	-3.3	6.9	8.5	16.9	18.9	8.6
수 입	6.4	-3.6	-12.3	6.7	-14.5	4.7	20.4	-9.3
수 지	-0.4	-47.3	-66.7	0.2	-	-	-1.4	-72.5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3월 수출은 금액·물량 모두 전월보다 크게 증가

- ‘15.3월 수출은 전월보다 16.9% 증가한 6.9조엔, 전년동월대비로도 8.5% 증가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15.5%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3.3% 증가
 - 엔저에 의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수출증가에 기여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유원동기 순으로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5대 품목 모두 증가
 - 원동기가 전월비 19.4%로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철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등도 10%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임

< 2015년 3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5.2월			2015.3월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9,338	8.8	6.3	10,136	10.5	8.5	28,257	10.6
2	철강	3,175	4.2	-5.6	3,692	0.7	16.3	10,231	4.7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2,965	10.1	-7.1	3,307	12.4	11.5	9,463	15.3
4	자동차부품	2,763	-1.8	2.8	3,091	6.5	11.9	8,543	3.1
5	원동기	2,159	-1.3	7.9	2,578	12.5	19.4	6,738	6.7

자료 : 재무성

-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상대국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월에 2위였던 아세안이 3위로 밀리고 중국이 2위 자리를 되찾음
- 주요 수출상대국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 모두 증가한 가운데, 중국이 35.1%로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임
- 對한국 수출은 14.6% 증가

< 2015년 3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5.2월			2015.3월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2,157	14.3	1.9	13,778	21.3	13.3	37,862	17.5
2	중국	8,889	-17.3	-14.7	12,012	3.9	35.1	31,320	12.7
3	ASEAN	9,784	14.8	1.0	10,737	11.6	9.7	30,207	16.0
4	EU	6,211	1.9	-5.4	7,049	9.1	13.5	19,823	6.2
5	한국	4,434	-3.2	-5.0	5,082	4.3	14.6	14,185	3.9
6	대만	3,217	-1.7	-12.1	3,976	6.1	23.6	10,853	7.5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3월 수입은 증가로 반전

- ‘15.2월 수입은 6.7조 엔으로 전월의 감소에서 4.7% 증가로 반전, 그러나 전년동월비로는 14.5% 감소
- 수입 물량도 전월 대비 3.1% 증가, 전년동월비로는 10.3% 감소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같으나 1위와 2위의 순위가 바뀜
- 전월에 수입액 순위 1위로 부상했던 액화천연가스가 2위로 밀려난 반면, 원유가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음

- 품목별로는 원유가 전월비 28.7%의 가장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50.1%의 큰 폭으로 감소
- 이어 통신기, 반도체 전자부품 순으로 전월보다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의류·동부속품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은 감소

< 2015년 3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5.2월			2015.3월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5,678	-54.8	-32.3	7,309	-50.7	28.7	21,380	-48.4
2	액화천연가스	6,337	-5.2	-19.2	6,209	-12.3	-2.0	20,392	-3.5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2,433	14.9	-8.1	2,672	0.6	9.8	7,743	5.1
4	통신기	2,154	7.7	-8.7	2,508	-2.9	16.4	7,022	-0.8
5	의류·동부속품	3,049	60.4	4.3	2,308	-13.5	-24.3	8,281	7.8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32.6%로 가장 크고 이어 EU, 아세안, 한국, 호주 순으로 수입증가폭이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보다 7.5% 증가
-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7.0%의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수입비중이 큰 기계류의 수입 감소가 가장 두드러짐

< 2015년 3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5.2월			2015.3월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6,578	39.4	-6.8	13,754	-19.6	-17.0	48,115	0.04
2	ASEAN	9,968	-2.2	-13.6	10,899	-3.1	9.3	32,401	0.2
3	미국	5,840	0.5	-9.8	7,747	23.9	32.6	20,060	7.7
4	EU	6,234	-3.8	-8.1	7,088	-5.3	13.7	20,107	-4.1
5	호주	3,644	-2.7	-22.1	3,701	-14.8	1.6	12,020	-6.5
8	한국	2,587	-8.6	-14.1	2,780	-8.3	7.5	8,379	-9.0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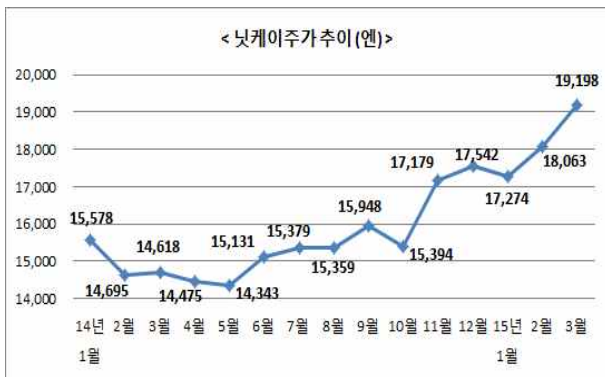
3. 엔저 · 고주가 · 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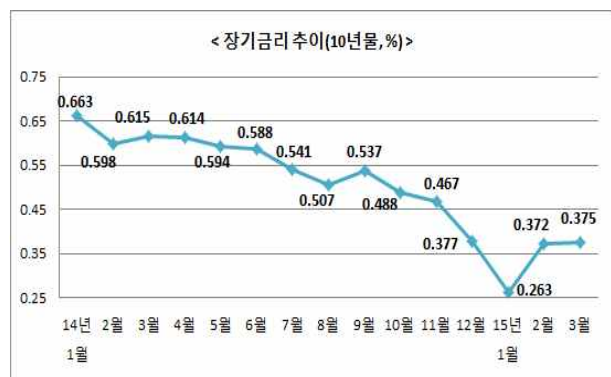
- ‘15.3월 평균 주가는 기업들의 경영실적 개선, 엔저 등을 배경으로 전월보다 6.3% 상승한 19,198엔
- 4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월 22일에는 20,000엔대를 돌파, 4월 24일 기준 20,020엔

□ (금 리)

- ‘15.3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전월의 상승세가 이어짐으로써 전월비 0.3% 상승한 0.375%
- 4월 들어서는 일본은행의 장기국채매입(공개시장조작)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 4월 24일 기준 0.29%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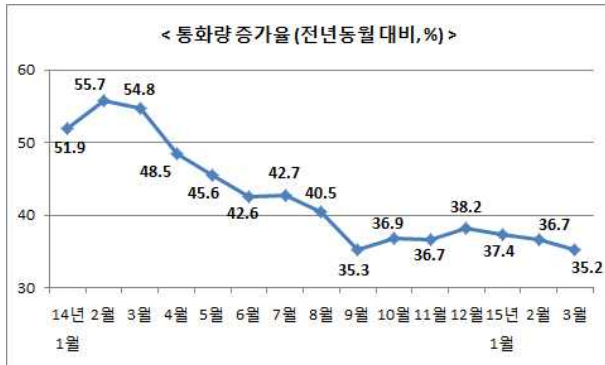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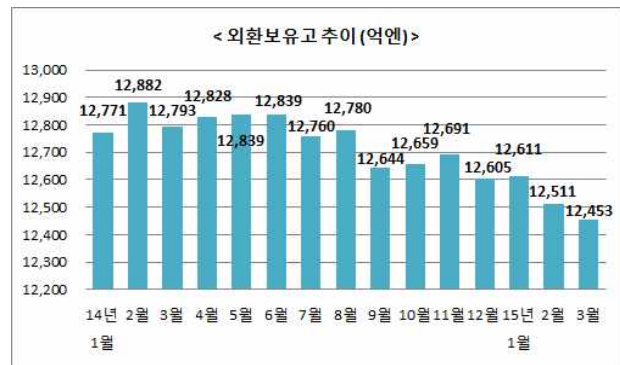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5.3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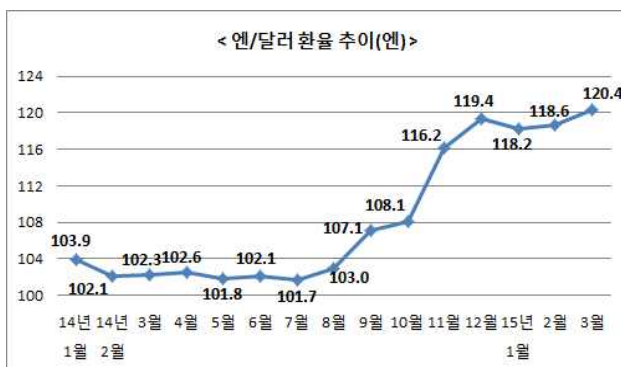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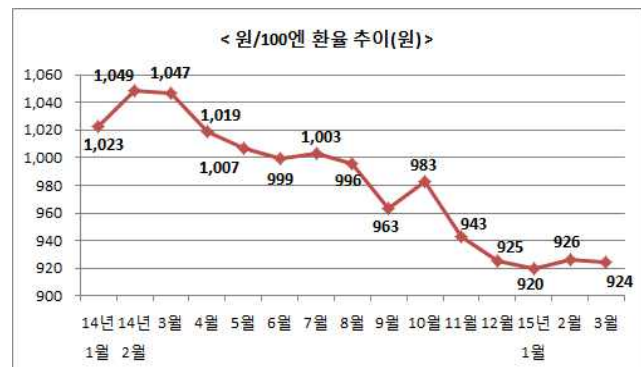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5.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보다 1.5% 상승한 120.4엔(엔저)
 - 4월 들어서는 119~120엔대에서 추이, 4월 24일 기준 119.50엔
-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15.3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24엔으로 전월의 926원에 비하여 0.2%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4개월만에 증가로 반전

□ (동향)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4개월만에 증가로 반전

○ '15년 2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4조 엔으로 전월비 16.2%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3	2014	2014				2015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금 액		131,946	125,929	6,907	15,159	14,552	13,570	11,901	13,833
증가율	전기비	34.9	-4.6	8.1	119.5	-4.0	-6.7	-12.3	16.2
	전년동기비	34.9	-4.6	54.8	73.2	192.3	-22.2	-5.6	113.3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에 이어 2월에도 -27.4%로 큰 폭으로 감소

○ 북미지역과 아시아지역의 투자는 증가

- 對미국 투자가 103%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인데 이어 對중국투자도 16.6% 증가

○ 유럽과 중남미,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

< 2014년 일본의 주요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2014년		2015.1월			2015.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세계	125,939	-4.6	11,901	-12.3	-5.6	13,833	16.2	113.3
아시아	37,617	-4.3	3,073	-42.8	34.8	3,339	8.7	24.5
중 국	7,150	-19.3	779	-13.6	11.9	908	16.6	79.8
한 국	3,328	3.7	212	-49.2	-20.6	154	-27.4	-64.9
북 미	46,264	1.2	4,672	177.6	46.4	8,867	89.8	280.6
미 국	44,365	3.3	4,359	173.6	43.4	8,849	103.0	367.5
중남미	7,710	-22.1	1,064	-18.2	-0.1	18	-83.1	-90.7
유 럽	26,310	-16.7	2002	-51.0	-65.0	754	-62.4	167.4
대양주	5,963	1.2	917	1.9	338.8	270	-70.9	-22.4
중동	527	-	171	163.1	-	449	162.6	3,107.1
아프리카	1,539	205.4	2	-98.8	-98.5	137	6,750.0	124.6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징)

○ 2015년 들어서도 M&A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엔저 속에서 자산지소형 해외직접투자와 생산거점형 해외직접투자 모두 일본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막바지 단계의 미일 TPP 교섭

□ 미일정상회담 앞두고 막바지 교섭

- 4월 28일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TPP교섭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감
 - 초점인 4개 분야중 쇠고기, 돼지고기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짐
- TPP 타결의 전제가 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의 의회통과도 교섭타결에 호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일 양국정부는 남아있는 쌀과 자동차 분야에 대해 4월 19일 각료협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수입제한 분야는 진전

- 일본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농산품은 각료의 판단이 필요한 쌀을 제외하고 사무레벨에서의 교섭은 거의 종료됨
 - 쇠고기, 돼지고기는 이미 미국산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음
 - 38.5%의 쇠고기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10% 전후까지 인하하고, 돼지고기의 kg당 최대 482엔의 관세를 50% 전후 인하
 - 이에 더하여 수입이 급증한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S/G)의 기준에 대해서도 미일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음
- 일본은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기 전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 일본 국내 축산업에 대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쌀과 자동차 분야는 여전히 성역

- 한편, 농산품 중에서도 성역인 쌀과 자동차 분야는 여전히 미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이 미국산 쌀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특별수입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으나, 수입한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연간 20만 톤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5만 톤이 한계라는 입장을 견지
- 자동차분야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2.5% 부품관세의 즉시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자동차업계의 강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다수의 자동차부품 관세철폐를 장기간 유보하려고 함
 - 미일간 무역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세를 원래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에 대해서도 미일 모두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음
- 미국과 일본은 사무레벨에서 타결하기 어려운 쌀, 자동차에 대해서는 각료협약에서 진전시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낸 후에 4월 28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수순을 취하고 있음

□ 각료협약, 약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10월 21일 종료된 미일 각료협약에서는 일정부분 진전은 있었으나 초점인 쌀과 자동차 분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쌀과 자동차 분야는 일본과 미국 모두에서 양보를 견제하는 자국내 압력이 강하여 완전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
- 다만, 자동차부품의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사무레벨에서 결말을 짓기로 합의하는 한편, 쌀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금 양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 대부분의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즉시 관세를 철폐하되, 구체적인 철폐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간 최종 조정기로 함
 - 쌀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동안 견지해온 특별수입한도 5만 톤에서 후퇴하는 방향으로 검토

2. 구매력평가와 엔화환율의 장기적 전망

□ 환율의 장기적 변동요인으로서 구매력 평가

- 환율은 단·중기적으로는 금리차이나 무역수지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
 - 구매력 평가는 절대적 구매력평가와 상대적 구매력평가로 나뉘는데, 절대적 평가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특정 시점에서 비교하는 접근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산출하는 빅맥지수가 대표적인 예임
 -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2015년 1월 시점에서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은 미국에서 4.79달러, 일본에서는 370엔임. 따라서 $370=4.79$ 달러로 되는 구매력평가 수준을 구하면 달러당 약 77엔임
 - 그러나 실제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18엔 전후이기 때문에 절대적 구매력 평가로 본 엔화는 30%정도 저평가 되어있는 셈임
- 그러나 단일 상품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간 참고가 되는 것이 상대적 구매력평가로서 국가 전체의 물가동향을 2국간으로 비교하여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접근방법임
 -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기업물가지수가 1980년대 전반에 비하여 2배 상승하여 동기간 중 달러의 구매력은 절반으로 떨어짐
 -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물가하락으로 엔의 구매력이 역으로 높아졌음
 - 양국의 물가동향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엔에 대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함

□ 구매력평가와 실제 환율간 괴리

- 상대적 구매력평가와 실제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동향을 보면, 구매력평가가 장기적으로 엔고·달러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물가상승율이 일본의 물가상승율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되어 엔에 대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실제 환율도 수년마다 파도와 같은 사이클을 그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의 트렌드로 회귀하는 현상을 반복해왔는데, 이는 인플레이가 진행되는 국가의 통화는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국가의 통화는 상승한다고 하는 구매력평가의 원칙을 뒷받침해 줌
- 구매력평가를 기점으로 한 년도나 사용하는 물가지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환율 안정을 판단하는데 실제 환율이 구매력평가로부터 어느 정도 괴리되어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이 효과적임

□ 2% 물가상승목표와 구매력 평가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2%의 물가상승 목표에 집착하는 것도, 구매력평가가 하나의 근거임
- 여타 주요선진국의 물가상승율은 이제까지 장기적으로는 2%정도로 일본의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에서는 엔고압력이 걸리기 쉬움

□ 엔화환율은 장기적으로 엔고방향으로 회귀

- 2015년 2월말 구매력평가(기업물가지수 기준)은 달러당 약 100엔이나, 현재의 엔화 환율은 이보다 약 20% 엔저방향으로 괴리되고 있음
- 엔저 방향으로의 괴리 폭은 과거 최대였던 1980년대 전반(최대 27%)에 근접하고 있음
- 미일간 금리차 확대 전망 등에 비추어 단·중기적으로는 엔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매력평가를 고려하는 한 장기적으로는 엔고방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경험에 의한 법칙임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확대

□ (중 합)

- ‘15.3월 대일 무역적자는 2,242백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280백만 달러 확대
- 이는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는 수출의 호조로 흑자가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엔저로 인해 대일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임
 - 특히 전월에 수입이 크게 감소했던 기초산업기계, 석유화학제품 등 수입비중인 큰 품목이 3월에 큰 폭의 증가로 반전된 것이 대일무역적자가 확대된 요인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8%에서 4.6%로 낮아진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과 같은 11.4%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7.6%로 전월의 7.9%보다 낮아짐

< 2015년 3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5.2월			2015.3월			2015.1-3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1,997	-23.4	-11.8	2,141	-23.1	7.2	6,393	-22.0
대일 수입	3,839	-13.7	0.2	4,383	-7.6	14.2	12,054	-8.8
무역 수지	-1,842	4	273	-2,242	400	280	-5,661	646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5.3월 대일 수출은 전월대비로 5개월만에 감소세에서 탈출, 7.2% 증가
 - 이는 총수출증가율 13.2%에는 크게 못 미치나 일본수입증가율 4.7%를 상회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2월	-23.4	-11.8	-3.3	-8.1	-3.6	-12.3
2015. 3월	-23.1	7.2	-4.3	13.2	-14.5	4.7
2015.1-3월	-22.0	-	-2.9	-		-

- ‘15.3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전월비 26.8%나 감소한 광물성연료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
- 이에 따라 광물성연료의 대일수출 순위가 그동안 1위에서 3위까지 밀려나간 반면, 철강제품이 1위로 부상
- 대일수출 증가품목 중 정밀화학제품의 증가폭이 25.5%로 가장 크고, 석유화학제품의 증가폭이 2.0%로 가장 적음

< 2015년 3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 목 명	2015.2월			2015.3월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계	1,997	-23.4	-11.8	2,141	-23.1	7.2	6,393	-22.0
1	철강제품	238	-31.9	-10.2	265	-29.4	11.3	768	-29.2
2	전자부품	185	-13.0	-0.5	217	-0.6	17.3	586	-6.0
3	광물성연료	279	-49.0	-24.8	204	-66.7	-26.9	861	-54.0
4	산업용전자제품	195	-16.7	-16.3	199	9.2	2.1	627	-1.3
5	정밀화학제품	98	-19.2	-13.3	123	-6.9	25.5	333	-10.5
6	수송기계	99	-0.4	-2.9	109	-13.9	10.1	309	-7.1
7	석유화학제품	100	-15.1	-12.3	102	-14.4	2.0	317	-9.6
8	기계요소공구·금형	73	-16.6	-5.2	84	-10.0	15.1	233	-14.1
9	농산물	73	-14.6	-15.1	84	-8.0	15.1	243	-11.1
10	금속광물	72	-3.6	-15.3	82	16.6	13.9	239	5.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5.3월 대일 수입은 전월대비 14.2%의 큰 폭으로 증가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2월	-13.7	0.2	-19.7	-15.1
2015. 3월	-7.6	14.2	-15.3	14.1
2015.1~3월	-8.8	-	-15.4	-

- ‘15.3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수송기계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
- 대일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일 수입에 있어서도 철강과 전자부품이 수입순위 1,2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품목분야에서 한일간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

- 대일 수입증가품목 중 산업기계의 수입증가폭이 35.9%로 가장 크고, 이어 기초산업기계, 정밀기계, 석유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 등도 20% 이상의 큰 증가폭을 보임
- 유일하게 수입이 감소한 수송기계는 전월비 8.2% 감소

< 2015년 3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 목 명	2015.2월			2015.3월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 계	3,839	-13.7	0.2	4,383	-7.6	14.2	12,054	-8.8
1	철강제품	529	-21.0	0.4	544	-30.4	2.8	1,600	-23.2
2	전자부품	501	7.2	-1.2	517	3.4	3.2	1,525	3.7
3	석유화학제품	370	-24.0	-7.0	454	-0.7	22.7	1,224	-17.2
4	정밀화학제품	319	-14.2	10.0	381	-2.9	19.4	990	-8.9
5	정밀기계	272	10.8	-2.2	341	35.2	25.4	891	34.9
6	기초산업기계	220	-39.8	-15.7	276	-7.4	25.5	758	-15.0
7	산업용전자제품	202	-14.2	5.8	247	-17.4	22.3	639	-12.9
8	수송기계	233	22.7	26.6	214	-6.2	-8.2	632	9.4
9	산업기계	156	-19.6	15.6	212	5.3	35.9	499	-6.1
10	플라스틱제품	195	-15.3	-2.0	210	-17.0	7.7	604	-1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동 향) '15.1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15.1분기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289백만 달러로 전기비 66% 감소, 전년동기비 61.3%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17.5% 감소, 전년동기비 14.1%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 투자도 전기비 15.1% 감소, 전년동기비 29.8% 감소
- 일본의 대한 투자 감소원인과 관련하여, 엔저 외에 전 분기까지 2분기 연속 큰 폭의 증가에 대한 반작용 영향도 있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 달러, %) >

	2013년		2014		2014.2분기		2014.3분기		2014.4분기		2015년.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80 (-19.2)	403 (-46.0)	72 (-10.0)	489 (21.3)	103 (45.1)	850 (73.8)	85 (-17.5)	289 (-66.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583 (2.1)	5,272 (4.1)	563 (-3.4)	4,484 (-14.9)	746 (32.5)	4,185 (-6.7)	558 (-25.2)	3,555 (-15.1)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 간 협력 사례)

- 일본 카루비사가 국내 원주공업단지에 스낵 과자공장을 신설(2015.4.8.닛케이)
 - 투자액은 40억엔으로 해태제과와 50대 50으로 합작회사 해태카루비를 원주에 설립
 - 2016년 가동 예정으로 기존공장을 합친 생산능력은 연간 100억엔으로 배증
- 일본 도시바가 SK하이닉스와 반도체회로를 미세화할 수 있는 차세대노광기술을 2015년 4월부터 공동개발하기로 발표(2015.2.6.)
 - 반도체의 성능향상과 코스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실용화를 목표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5.3월~2015.4월)

□ 국내 기관

- 『[일본경제포럼] 일본 재정건전성과 아베노믹스 재정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4월2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19>
- 『[일본경제포럼] 아베노믹스 첫 번째 화살 대담한 금융정책』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4월2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18>
- 『[일본경제포럼]한일 언론 아베노믹스 평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4월2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17>
- 『[일본경제포럼]일본의 성장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4월2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16>
- 『[일본경제포럼] 아베노믹스 현황과 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4월2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15>
- 『일본 기업의 내부유보 현황과 정부·재계의 입장』 한국은행, 2015년 4월17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5792&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경제연구회] 일본 FTA정책의 변화와 한일FTA 협상을 위한 조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4월16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14>
- 『일본 식품시장 트렌드 및 진출가이드』 KOTRA, 2015년 4월15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

-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산업연구원, 2015년 4월13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9&state=view&idx=50559&ord=0
- 『최근 일본의 가격경직화 현상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5년 4월10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5673&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4월)』 한국은행, 2015년 4월3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5441&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5&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저유가에도 에너지 스마트화에 주력하는 일본산업계』 LG경제연구원, 2015년 4월1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JapanInsight_2015_3_20150401152324.pdf
- 『소비세 인상 후 1년, 일본경제 회복 가능성과 평가 - 1% 내외 성장 예상』 포스코 경영연구소, 2015년 3월31일
https://www.posri.re.kr/report/view/board_id/2260/page/

□ 일본 기관

- 『한일관계 개선전망 : AIIB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등, 미중일 관계의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4월22일
http://www.canon-igs.org/column/150420_seguchi.pdf
- 『기업간 관계와 R&D 스펀오버』 과학기술정책연구소, 2015년 4월21일
<http://data.nistep.go.jp/dspace/bitstream/11035/3031/1/NISTEP-DP114-FullE.pdf>
- 『일본의 경제외교 방향에 관한 제언 : 관민제휴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외교』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5년 4월15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5/038.html>
- 『일본 소비구조의 변화 : 상품에서 서비스로』 효고경제연구소, 2015년 4월15일
<http://www.heri.or.jp/201504/26tyousa.pdf>
- 『아세안중국FTA(ACFTA) 및 아세안일본FTA(AJCEP)의 품목별 관세철폐효과에 관한 조사보고서』 국제투자무역연구소, 2015년 4월14일
http://www.iti.or.jp/report_08.pdf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설비투자』 상공종합연구소, 2015년 4월14일
<http://www.shokosoken.or.jp/chousa/youshi/26nen/you201405.htm>
- 『제조업을 둘러싼 현상과 과제 및 대응방안 :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산업분과회 자료』 경제산업성, 2015년 4월3일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eizou/003_haifu.html
- 『일본경제에 대한 엔저·유가하락의 파급효과 정리』 미즈호종합연구소, 2015년 4월2일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research/r150401japan1.pdf>
- 『국제무역의 영향을 감안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사회종합연구소, 2015년 4월1일
<http://www.esri.go.jp/jp/prj/hou/hou071/hou071.html>

2. 주요 경제 일정

<4월>

일자	주요내용
1	• 법인실효세율 2.51% 인하 실시
	• 경자동차세 증세
	• 간병보수 평균 2.27% 인하
	• 후생·국민연금 지급액 개정
	•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모바일 등 그룹 4사를 통합
7	•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 인도네시아 방문
8	• 미일국방장관회담(도쿄)
	•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회견
9	• 2015년도 예산안 통과
11	• 한중일관광장관회의(도쿄)
12	• 통일지방선거 1차 선거
13	• 오오타 국토교통대신, 세계물포럼 각료회의와 한중일 물담당장관회의(경주)
14	• 한일안보대화(서울)
15	• AIIB 창립 멤버 확정
16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워싱턴)
17	• 산업자원부장관 SJC 간담회
19	• 아시아·아프리카회의 60주년 정상회의(자카르타)
20	• TPP 미일각료회의(도쿄)
22	• 중일정상회담(자카르타)
	• JEFTA 교섭회의(도쿄)
26	• 아베 총리 미국 방문(4.26~5/3)
	• 통일지방선거 2차 선거
27	• 경제동우회 고바야시 신임회장 취임
	• 미일외무·국방담당 각료회의(뉴욕)
28	• 미일정상회담
29	• 아베 총리, 미국 의회 연설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상하이)

<5월 예정>

일자	주요내용
3	• 제1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아제르바이잔)
미정	• 한중일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아제르바이잔)
12~14	•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서울)
23	• 제6차 한일재무장관회의(도쿄)
27	•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독일)
미정	• 한일국방장관회담(싱가포르)